

17. 제주도학(濟州島學)의 창시자(創始者) 석주명(石宙明) 선생²⁴⁾

근자에 제주도학(濟州島學)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제주도학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석주명(石宙明)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석주명(石宙明) 선생을 생각할 때는 으레 제주도학(濟州島學)이 따라 다닌다.

연구전기(研究轉機) 열어

꼭 10년 전인 지난 1982년 나는 석주명(石宙明) 선생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선생의 누이동생 되시는 난사(蘭斯) 석주선(石宙善) 박사(博

24) 『한라일보』(삼각봉), 1992. 06. 26 (금), 논설위원.

士) 고희기념논총(古稀紀念論叢)에서였다. 그때 논제가 「제주도학(濟州島學) 연구(研究)와 석주명(石宙明) 선생(先生)」이었다.

논제부터가 그랬지만 이 글에서 나는 선생을 가리켜 “제주도학(濟州島學) 연구에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제주도학 정립의 기초를 이룩하여 후학(後學)들에게 이 방면의 접근을 인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선생을 마치 제주도학(濟州島學)의 정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일을 마치면서(사실은 보다 많은 일을 남기고 갔지만…) 훌쩍 떠나버린 사람 같다.”고 했다.

이 글을 쓰기 1년 전인 1981년 10월 6일은 선생이 가신 지 30주기(週忌)가 되는 날이었다. 그때 나는 제주신문(濟州新聞)에 권고하여 선생의 30주기 특집을 다루도록 하였으며 신문사의 청탁으로 내 자신의 글도 함께 실었다. 그때 주제로 ‘제주도학(濟州島學)의 초석(礎石)을 다진 선각자(先覺者)’였다.

그때 나는 30주기를 추도하는 글에서 선생을 “제주도학(濟州島學) 연구의 문을 열어준 학자”로 평가하면서 “비다(碑多)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 그 혼한 비들 속에 선생의 공헌을 기리는 빗돌 하나 없다.”고 애도했던 생각이 난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생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석주명(石宙明) 선생이야말로 ‘제주도학(濟州島學)의 창시자(創始者)’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학(濟州島學)을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때로 생각된다.

그럴 때 선생이 이룩한 『제주도총서(濟州島叢書)』(전 6집)을 놓고 보면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내용을 뒤적이다 보면

충동과 함께 어느새 제주도학에 빨려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짧은 생애(生涯) 큰 업적(業績)

선생은 물론 세상이 아는 것처럼 나비 학자(學者) 임에는 틀림없다. 적어도 이 방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생의 연구실적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곤충학(昆蟲學)·박물학(博物學)·어학(語學)·서지학(書誌學)·미래학(未來學) 등 실로 여러 방면에 걸쳐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주도학(濟州島學)에 쏟았던 선생의 정열과 노력은 어느 학문에도 뒤진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총서를 살펴본 사람 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인구(人口) 방언(方言) 곤충(昆蟲)을 비롯하여 역사 지리 동식물 농축산업 수산업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교통 체신 보건 위생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이후로 제주도에 관한 문헌(文獻)을 남긴 학자들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는 역사(歷史)·지지(地誌)·기문(紀文)·문집(文集) 등 매우 소중한 저서를 남겨준 분들도 있다. 그분들의 연구가 어느 특정 분야나 일정한 형식·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선생의 연구는 자료학적(資料學的)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동인(同人)이나 후학(後學)들에게 제주도학(濟州島學) 연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끌어들이는 견인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생의 연구 성과가 참으로 위대하고 영원한데 반하여 제주도학에

바친 선생의 생애는 너무나 짧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정리 작업이나 집대성(集大成)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햇빛 본 남매(男妹) 집념

천만 다행인 것은 선생 못지않은 집념의 학자 누이동생 석주선(石宙善) 박사의 존재라고 할 것이다. 만약 석주선(石宙善) 박사의 존재가 없었다면 반쪽의 햇빛도 못 보는 선에서 끝나버렸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전공이 달랐다 할지라도 학구적 열의와 욕구가 똑같은 두 분의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석주선(石宙善) 박사는 올해 들어 『한국본위(韓國本位) 세계박물학연표(世界博物學年表)』, 『나비 채집(採集) 이십년(二十年)의 회고록(回顧錄)』, 『나비박사 석주명의 과학 나라』 등 세 권을 출간시킴으로써 이미 출간되었던 9권과 함께 모두 12권으로 선생의 유고(遺稿)를 책으로 집대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제주문화(濟州文化) 인식(認識)해야

선생은 일찍이 『한국(韓國)의 자태(姿態)』 [제주도자료집(濟州島資料集)]에서 “한국의 진정한 자태를 찾으려면 제주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일이 있다. “제주도는 외래문화에 물들지 않은 금싸라기 같은 고유문화(固有文化)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 “우리가 공기와 물을 귀

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주도가 지닌 소중한 문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참으로 제주도학(濟州島學)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認識)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좀 더 열의 있는 연구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